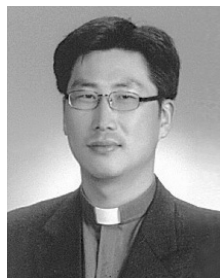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청소년들이 속해야 할 곳은?

전재현 베네딕토 신부
교구 청소년담당



“공부만 하는 한국 청소년, ‘더불어 살기 의식’ 세계 꼴찌” “꿈3 하루 5시간 반 자고 11시간 공부 강행군, 78% 학교서 스트레스 ... 45%만 행복” “대졸 백수 300만 시대”

2011년 상반기 청소년들과 관련된 신문기사의 제목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80% 이상이 대학에(전문대학 포함) 진학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을 졸업한 비경제 활동인구가 30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비경제 활동인구 가운데 ‘5명중 1명’이 대졸 이상 학력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주변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능력도 매우 낮다면,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가정은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은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 애만 학원을 안 보낼 수 없다”고 혼히들 말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성당 가서 시간을 낭비하느니 학원을

하나 더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남들이 다 간다면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도 좋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는 오늘날 교육정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양식으로 인해 ‘가정’ 안에서조차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관계 안에서 많은 교감을 나눌 때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 안에서 의미와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서로에게 속해 있을 때 그리고 하느님께 속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청소년 주일인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의말씀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요한14,16 참조)
제1독서 : 사도8,5-8,14-17 제2독서 : 1베드3,15-18 복음 : 요한14,15-21.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콜로2,7 참조)

사랑하는 벗들이여,
이제 우리는 2011년 8월 마드리드에서 열릴 다음 세계 청년 대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콜로2,7 참조)라는 주제로 마드리드에서 만날 것입니다. 저는 이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각 시대마다 많은 젊은이들은 진정한 우정을 쌓고 참 사랑을 알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자아실현을 이루며 참다운 안정을 얻기를 열망합니다. 젊은 시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생명을 지향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열망합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 특히 서방의 현대 문화는 하느님을 배제하고 신앙을 순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신앙의 보화를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이러한 연유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와 교회의 미래입니다! 바로 사도가 콜로새 신자들에게 써 보냈듯이, 뿌리를 내려 견고한 토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요한14,6 참조).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

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참다운 신원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삶은 그분과 이루는 친교를 통하여 완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땅을 깊이 파는” 사람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십시오. 참다운 벗이신 그분 말씀에 귀기울이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가십시오. 오로지 그분만이 세상을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뵙고’ ‘만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 안에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의 살아 있는 믿음과 창조적 사랑과 힘찬 희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존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젊게 하며 교회에 새로운 힘을 줍니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 청년 대회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은총입니다. 스페인 교회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쁜 신앙 체험을 나눌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가오는 세계 청년 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신앙과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저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 안에서 여러분을 기억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저의 축복을 보내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예수님이 계시는 곳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미사

부활 제6주일
청소년 주일 · 생명의 날

입당성가

131 찬미 노래 드리자

화답송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파견성가

128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영성의향기

::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은 별로 내키지 않을 때조차도 서로 만나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 일단은 무엇을 하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쌍의 남녀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자라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신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서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고 전합니다. 친교란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고 몸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싶다면 기도하기 위해, 미사와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제들과 친교를 나누려고 마음먹었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진 친교는 자기중심적이고 말뿐인 친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글 - 깊은생각

세상은 당신을 닮았다



어느 마을에 천 개의 거울로 만든 집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개 한 마리가 그 집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집 안에는 것처럼 즐겁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는 개 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구나! 종종 와서 친구들을 만나야지.” 같은 마을에 살던 우울한 개도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울한 개가 목을 축 늘어뜨린 채 안쪽을 노려보았더니, 집 안에는 적대적인 표정을 지은 천 마리의 개가 그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울한 개는 그곳을 떠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무서운 곳이야. 다시는 오지 않을래.”

- 옮겨온 글입니다 -

모임 / 행사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출범미사

일시: 5.30(월) 19:00
장소: 가톨릭근로사회관
문의: 교구 사무국, 250-3051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35주년 돌잔치

일시: 6.5(일) 10:00 미사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운동장
문의: 255-1582 (화-토 14:00~22:00)

제99차 선택 주말

일시: 6.10(금) 19:30 ~ 12(일) 18:00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문의: 안병희 마태오 (010)5295-9156
박수진 모니카 (010)2566-0474
<http://cafe.daum.net/daeguchoice>

JOC 50주년 기념 미사

일시: 6.19(일) 10: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대강당
주례: 전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

작은예수회 창립 27주년 감사제

일시: 6.7(화) 11:00 ~ 16:30
강론: 황창연 신부, 박성구 신부
장소: 경기도 현리 작은예수회 마을
문의: (02)777-6444, 교통편: 지역별 출발 있음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소 / 피정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모임

일시: 6.4(토) 16:00 ~ 5(일) 14: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 이상-만32세 이하 미혼남성
문의: (010)8353-2323

성소를 찾고 있는 젊은 자매들의 기도모임

일시: 6.5(일) 13:00, 이곡성당
문의: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이 리디아 수녀(016)570-0939

성바오로딸 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6.6(매월 첫 월요일) 19:30
장소: 바오로딸 대구서원
문의: (010)2503-5185

젊은이 기도모임

일시: 매월 첫째 일요일 14:00
장소: 월배성당수도원
문의: (010)5313-0241

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넷째 토요일 14:00
장소: 대구 월배수도원
문의: (010)5064-7467

2박3일 무료 치유피정

일시: 6.3(금) 18:00 ~ 5(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숙식제공)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피정

일시: 6.4(토)17:30~5(일)14:00, 골롬반 본부
대상: 해외선교사제에 관심 있는 젊은이
문의: 양창우 신부, (010)6818-3737

교육 / 모집

6월 영어 성경반 모집

개강: 6.2(목) 10:00~12:00, 월 2만 원
과정: 목마르, 창세 / 화-에페소, 신명
문의: 관덕정, 254-0151 / (010)2578-5535

선교훈련 시그마 코스 17기

일시: 6.10(금)~12(일), 회비: 16만 원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 피정의집
대상: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교우(개인 또는 단체)
문의: 미래사목연구소, (031)985-2835

조이플 스테이(15~17차)초대

일시: 6.11~12 / 18~19 / 25~26 (토~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대구관구
대상: 미혼여성 (미사 준비, 회비 없음)
문의: (010)2649-2045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주영어마을

초·중학생 영어캠프 선착순모집

캠프기간: 7.25(월) ~ 8.20(토)
접수기간: 6.7(화) ~ 17(금)
접수: www.gev.ac.kr
문의: (054)777-8000

안내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신승준, 이영순(마리아글라렛)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6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일례미사 안내	6월 1일(수) 오전11시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2층 강당	미바회 미사	6월 3일(금) 오후2시	성모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6월 2일(목) 오후2시	성모당	성모의 기사회 미사	6월 4일(토) 오전10시	월배성당 내 수도원
			푸른군대 첫 토요신심미사	6월 4일(토) 오후2시	성모당

강북 행복을 심는 치과

질곡 화성3차아파트와
화성센트럴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 323-2875 / 323-2842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Since 1951
고려주단

김숙자(마리아)
김명희(로사)
전통·작품 한복 훈수·예단 전문점
동아백화점 본점 맞은편
☎ 425-3470

허리아프고~ 다리아플때

척추 관절을 치료하는 ~
참조은병원
척추 관절을 위한 13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에 多 모였습니다.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흥(요한)
T.630-8000 송현역2번 출구

자기주도학습 1:1 코칭

◆ 성적향상, 학습태도 개선, 자신감향상
시험불안 해소, 관계개선 등
→ 행복한학습코칭센터, kpc 고은점(미아엘라)
☎ 상담: 053355-2630(범어동)
010-3829-8756
※ '내 아이 제대로 이해하기' 특강 문의 환영

마리아주 웨딩

유럽 명품 토탈 웨딩샵
맞춤 드레스 제작
www.mariagewedding.kr
김주영(아셀라) · 김선영(글라라)
(053) 628-4000
+건들배위내거리 불교방송국에서 사내방향 50m+

"이제 인공관절도 로봇수술시대"
대구·경북 최초 인공관절 수술로봇 도입

늘열린 성모병원
병원장 강구래(아우구스티노)
☎ 422-0911 www.esungmo.com
봉산동 가톨릭 병원
* 전문분야: 인공관절, 관절염, 척추, 통증치료, MRI 촬영

KIM YOUNG JOO GOLF
LYLE & SCOTT GOLF

임혜경 (율리아) T. 744-9226

만촌점

만촌네거리
이크르타워 상가 1층
◆ 지하철 2호선
만촌역 2번 출구
바로 앞

Jeep® 수성점

'미국 정통 아메리칸 빈타지
캐주얼 Jeep'
남부 정류장 방면 수성이크로 타워 상가 1층
◆ 지하철 2호선 만촌역 2번 출구 바로 앞 ◆
T. 744-9227
대표 이윤순(수산나)